

산림교육

숲이라는 드넓은 교실에서 행복한 인격체로 숲, 사람을 키우다

심포지움에 다녀와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홍보기획본부장 | 소현주



지난 3월 2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숲, 사람을 키우다” 산림교육 심포지움에 회장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우리 협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다. 요즘 산림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주듯 웅장한 국제회의장은 입추의 여지없이 교육 관계자와 임업관계자들로 꽉 채워졌다.

이 행사를 주최한 국립산림과학원 운영권 원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심포지움을 마련한 취지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교 폭력, 게임중독, 과도한 사교육 그리고 청소년 자살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숲에서의 산림교육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 2011년 제정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관한법률」이 효과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산림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기위함이라고 하면서 과거 산림청은 숲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을 했으나 지금의 산림청은 산림교육을 통해 숲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신원섭산림청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국토녹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써 이렇게 울창하게 가꾸어진 숲은 이제 국민 모두를 위한 휴양과 치유의 공간이자 교육의 장이되어 특히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실이자 교과서가 되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 그자체는 청소년 개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 정체성으로 이어져 진정한 인간 성장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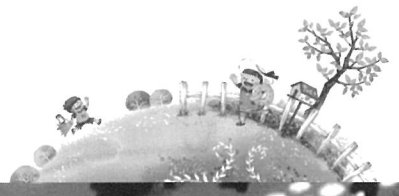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황영철 국회의원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콘크리트 건물속에서 획일화된 일상으로 공격성을 가중시킨다면서 건강한 푸른숲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청소년을 행복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숲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고 역설 한다.



이어서 각 단체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나와 심도있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숲(산림)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등을 알기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산림교육 소개 자료집 “숲, 사람을 키우다”를 나누어 주어 참 좋았다.

이 책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숲에서의 활동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시켜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안정감은 배려심과 이해심, 사회성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학습능력 측면에서 숲 활동 이후 문제 해결 능력이 35.5%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숲을 운동장 삼아 뛰어 놀게 함으로써 신체 발달의 균형과 면역력이 증진되어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을 높여 주었으며 숲 체험 전후 우울감이 2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지켜 보면서 산주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보건학 석사 졸업에 이어 산림치유학 박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산림환경이 국민들 건강증진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숲의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희망이 보여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山林**